

전남도 '청년이 살고 싶은 전남' 만들기 총력

제2차 청년정책 계획...일자리·주거 등 5대 분야 100개 과제 2030년까지 1조 3048억 투입...청년 자립·정착 생태계 구축

전남도가 지역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담은 '제2차 전라남도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대 분야에 걸쳐 총 100가지의 과제를 발굴, 청년들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청년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지역 청년 6546명이 전남을 떠났으며 생산가능연령(15~64세) 인구도 조식 감소하고 있다. 전남의 청년 인구는 전국 광역 지자체 가운데 13위에 불과하다.

특히 최근 이른바 '쉬었음' 청년의 증가로 청년 빈곤가구도 증가하면서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심리, 정서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전남도는 전국 평균보다 청년 인구가 낮음에 따라 지역 경제 침체와 지역 소멸 위험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에 청년정책을 통한 '청년이 살고 싶은 전

남' 만들기 나선다.

◇청년, 스스로 정착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청년 중심, 꿈이 실현되고 살고 싶은 전남'으로, 구체적인 목표는 '청년이 지역의 주체로 자립·정착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이다. 이를 위해 1조 304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전략으로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청년들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18~24세의 '청년 초반'에게는 교육, 일경험, 진로상담, 정보제공, 자기개발 지원을 통해 미래 준비 및 사회 진입 기반을 강화한다. 25~34세의 '청년 중반' 세대에는 일자리, 주거, 복지, 정신건강, 문화여가, 금융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자립과 정착을 위한 생활기반을 마련하고, 35~45세의 '청년 후반'을 대상으로는 가족 지원, 참여 확대, 공동체 기반 강화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한다.

'전라남도 청년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남

■청년 자립·정착 생태계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전략

- 18~24세 교육·일경험·진로상담
- 25~34세 일자리·주거·문화여가·금융지원
- 35~45세 가족 지원·공동체 기반 강화

△주거·교육·문화 향유

- 월세·신혼부부 지원·공공주택 공급 확대
- 실무 중심 취·창업 연계 교육
- 정신건강 진료·상담비 지원
- 여가 활동비 확대·결혼축하금·육아 코칭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1순위는 '청년수당 지급'이었다. 이어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기업 재정 지원', '일자리 정보 온라인 포털사이트' 순으로 나타났다. 또 청년들이 전남에서 일자리를 구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으로 '낮은 급여 수준'을 꼽았으며, 그 비율이 23.7%에 달했다. 이와 더불어 '원하는 업종의 기업이 없어서'(20.0%), '업종의 편중'(15.2%), '기업에 관한 정보 취득의 어려움'

(14.3%) 등이 주요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전남도는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수당 지급을 통한 고용 및 일자리 정책 희망 ▲중소기업 성장 지원 ▲취업 컨설팅·멘토링 정책 희망 ▲급여 및 복리후생 요인 중시 등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들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주거 안정과 교육 접근성·문화 향유 기회 확대=전남도는 청년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청년 월세 및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 지원, 공공주택 공급 확대, 청년 주거 보호 및 안전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역 균형 및 직무역량 중심의 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 접근성 및 지역 균형 향상 ▲실무 중심 취·창업 연계 교육 강화 ▲지역 기반 청년 교육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또 높은 교육 환경에 대한 중요도와는 달리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점을 고려해 교육정책 수립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문화복지 분야에서는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 통합 지원에 나선다. 특히 '정신건강 관리 지원'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진료 및 상담 비용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희망하는 '문화예술포럼 및 취미생활 프로그램 개설'을 확대하며, '여가활동비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또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과 현실적인 어려움이 큰 만큼, 결혼축하금 지원, 신혼부부 및 육아 코칭 지원 등 가족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청년 참여 확대 및 정책 정보 접근성 제고=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청년정책 플랫폼 및 청년센터 활성화를 통해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청년 통계 기반의 정책 설계와 데이터 중심의 정책 추진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들의 정책 참여 확대와 청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라남도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전남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관광재단, 여수항 크루즈 활성화 나서

제주국제크루즈포럼 참석...홍보부스 마련 여수항 장점 부각

전남관광재단이 크루즈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15일 전남관광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12일 까지 서울 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2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에 참석, 크루즈 기항 확대를 위한 여수항의 장점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등 홍보 활동을 펼쳤다.

여수시와 여수관광항만공사 등도 포럼 기간 마케팅 활동에 동참했다. '제주국제크루즈포럼'은 지난 2013년부터 열리

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크루즈 포럼으로, 매년 세계 주요 선사 및 여행사, 기항지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교류하면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관광재단은 포럼 기간, 공동 홍보 부스를 운영하면서 ▲최대 15만 t급 접안이 가능한 부두 인프라 ▲24시간 접안 가능한 여수 엑스포 여객선터미널 ▲전남지역의 다양한 역사·문화자원 현황 ▲크루즈 기항에 따른 인센티브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며 차별성을 강조했다.

관광재단은 또 홍보 부스를 찾은 MSC 크루즈, 일본 하카타항 등 주요 글로벌 선사 및 기항지와의 상담을 진행하면서 여수항의 경쟁력을 알리는 등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전남관광재단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여수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글로벌 선사와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세계적인 크루즈 관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마케팅 활동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상반기 여수항에는 총 3척의 크루즈가 입항했고 하반기에도 국제 크루즈 3척이 입항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에 참가한 해외 청년들이 전남 해안에서 정화활동을 펼친 뒤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제6회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 개막

19일까지 신안·8월 8~12일 완도 프랑스 등 국내외 50여명 참여 토론·환경정화활동·생태교육 등

전남도는 15일 신안군과 완도군에서 '제6회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를 진행한다. 신안군에서 진행되는 청년 섬 워크캠프는 오는 19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8월 8~12일에는 완도군에서 개최한다.

올해 워크캠프는 프랑스, 이탈리아, 멕시코 등 15개 청년과 국내 체류 외국인과 지역 청년 등 총 50명이 참여한다. 참가자는 35세 이하 청년들로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바탕으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핵심 주제인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와 관련 토론 및 협력에 나선다.

특히 오는 8월 7일 개막하는 섬의 날 국가기념일 행사(완도)에 참여해 지역사회 교류에 활기를 더할 전망이다.

청년 섬 워크캠프는 신안과 완도의 대표 섬을 둘러보고 독거어르신 도시락 배달, 해안 정화활동, 갯벌 생태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는 전남 섬의 가치를 국내외로 확산시키고 섬 주민과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됐다. 33개국 394명의 청년이 참여했으며, 전남 7개 시군 20개 섬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도, 농업용수 확보 위해 농업용 저수지 점검

3207개 대상

전남도가 여름철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도내 농업용 저수지 점검을 실시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폭염과 짧은 장마의 영향으로 올해 강수량 부족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도내 농업용 저수지 3207개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저수율 실태와 취수시설 작동 상태, 누수 여부 및 대체 수원 확보 현황 등으로 농업용수 공급과 직결되는 주요 항목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전체 농업용 저수지 중 저수율량이 부족하거나 매년 용수 부족이 발생한 중점관리저수지를 46개로 분류했다. 도는 중점관리저수지의 저수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인근 관정과 양수장 등에서 물을 끌어와 채울 계획이다.

전남도는 또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기상 정보와 연계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관정 개발, 간이양수장과 송수관로, 돌병 설치 등 지역 맞춤형 용수 공급대책을 수립하고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장성 죽림제.

전남도 관계자는 "물 부족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에 나서겠다"며 "특히 올해 폭염이 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업인이 물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이어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3000만 뷰 돌파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격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